



'아영이네 반찬, 흥부가 기가막혀! 큰 호응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영주)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특화사업인 '아영이네 반찬, 흥부가 기가막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등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한다.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생활 불편 사항을 살펴며 복지 시작지에 발 걸음도 힘쓰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식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무더운 여름철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락을 받으신 어르신은 "거동도 어렵고 무더위로 밥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니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김봉태 아영면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남원시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인술)는 중북을 앞둔 23일,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삼계탕을 직접 대상 가구에 전달하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무더위에 따른 생활 불편 사항과 복지 욕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등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이영미 동장은 "주변에 여전히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금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치매관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2일 치매에 관한 지식과 돌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돌봄지원사, 간호조무사 등 관내 치매관련 종사자 230명에게 치매환자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2년에 이어 네 번째 교육으로 치매 돌봄 분야의 전문가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숙 교수를 초빙해 스윙호텔 남원 1층 대연회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치매관련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치매돌봄 기법과 대상자 맞춤형 소통전략, 맞춤형 인지프로그램 설계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치매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을 습득해 역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 치매환자 증상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지 막막했게 많았는데 실질적인 대처 기법과 인지프로그램 구성법을 배우게 되어 현장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 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용재 치매인식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고품격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료-문화예술, 지역사회 삶의 질 높인다

전주병원-문화공간 이룸 'ERUM MEDICI' 창립 파트너십

전주병원과 문화공간 이룸이 의료와 문화예술이 함께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에 나섰다.

문화공간 이룸(대표 이윤정)은 23일 전주병원 경영지원센터에서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이사장 최정웅)과 ERUM MEDICI 창립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ERUM MEDICI의 첫 번째 창립 파트너(Founding Partner No.001)로 공식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원 협약을 넘어 의료기관과 민간 문화예술 공간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병원은 1996년 개원 이후 30년간 전북 지역의 의료 기반을 지켜온 종합병원이다.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 유소년 스포츠 후원, 어르신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지속해 왔으며,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년에는 환경경영·사회공헌·윤리경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삼철관테터를 개소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도 강화했다.

문화공간 이룸은 2018년 설립된 13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민간 공연장이다. 지난 8년간 공공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획과 관객 개발을 통해 지역 클래식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누적 공연 400회 이상 누적 관객 1만 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비르투오조 시리즈',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이룸 글로벌 스테이지', 'NOW 청년 PROJECT' 등 독자적인 공연 브랜드를 구축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과 협업, 해외 문화교류, 청년 예술가 발굴을 통해 지역 민간 공연장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RUM MEDICI는 르네상스 시대 예술을 후원했던 메디치 가문의 정신에서 착안한 문화공간 이룸의 기업 문화예술 후원 브랜드다.

참여 기업을 단순한 후원사가 아닌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함께 높이는 '공동 설계자'로 예우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업의 이름과 로고는 문화공간 이룸 내 '메디치 월(Medici Wall)'에 등재되며, 주요 공연과 문화예술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함께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병원은 문화공간 이룸의 주요 문화예술 사업과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공연 초청, 기업명 표기, 임직원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도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룸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8월 말 전체 창립 파트너가 참여하는 ERUM MEDICI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지역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의 문화 향유, 민간 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전북형 메세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만호 기자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RUM MEDICI는 르네상스 시대 예술을 후원했던 메디치 가문의 정신에서 착안한 문화공간 이룸의 기업 문화예술 후원 브랜드다.

참여 기업을 단순한 후원사가 아닌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함께 높이는 '공동 설계자'로 예우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업의 이름과 로고는 문화공간 이룸 내 '메디치 월(Medici Wall)'에 등재되며, 주요 공연과 문화예술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함께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병원은 문화공간 이룸의 주요 문화예술 사업과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공연 초청, 기업명 표기, 임직원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도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룸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8월 말 전체 창립 파트너가 참여하는 ERUM MEDICI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지역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의 문화 향유, 민간 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전북형 메세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만호 기자

전주시 대표기업 5곳, '우리전주 착한기업' 동시 가입

지역사회에서 숭선수범하며 나눔을 앞장서 실천해 온 5개 기업이 우리전주 착한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병규, 이하 전북 사랑의열매)는 23일 전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한병규 전북 사랑의열매 회장, 5개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전주 착한기업 단체가입식'을 개최했다.

'우리전주 착한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경영을 바탕으로 3000만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속한 기업이 참여하는 전북 사랑의열매의 신규 법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우리전주 착한기업'의 첫 단체 가입 주인공은 △우시장 이매진 △우시장비씨푸드서비스 △전북도시가스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 등 총 5개사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 △사업 안내 △인사말 및 기부자 소감 발표 △'우리전주 착한기업' 현판 전달 △출범 기념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가입한 5개 기업은 에너지와 식품,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해 온 대표 기업들로, 앞으로 전주시·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준비 본격화... 24개 실무 TFT 가동

본관서 오리엔테이션 개최... 향후 일정 공유

전북대학교병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TFT)를 출범시키며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의 핵심 실행조직인 24개 분야별 실무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운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약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이영근 개원준비단장을 비롯해 TFT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준비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전북대병원은 앞서 군산전북대병원 추진조직을 개원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개원준비위원회와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계적인 개원 준비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출범한 실무TFT는 이러한 추진체계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조직으로, 분야별 개원 준비 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안정적인 개원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TFT는 의료인력, 진료체계, 조직·경영, 의료장비·정보화, 임상연구 등 5개 분야 2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진과 간호사, 행정직, 보건직, 약무직, 전산직 등 모두 178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은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증·응급·필수요료를 책임질 새로운 거점병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개원을 준비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은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증·응급·필수요료를 책임질 새로운 거점병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개원을 준비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추진한다.

조직·경영 분야는 조직 설계와 인력 운영, 물류체계 구축, 직원 교육, 개원 홍보를 맡으며, 의료장비·정보화 분야는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과 의료 인공지능(AI) 도입, 의료장비 및 의료비품 구축을 추진한다.

임상연구 분야는 연구병동 운영과 임상연구 수행체계를 마련해 개원과 동시에 연구 기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 실무TFT를 중심으로 개원 일정에 맞춰 분야별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정적인 병원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근 개원준비단장은 "실무TFT는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준비의 실행력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이라며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은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증·응급·필수요료를 책임질 새로운 거점병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개원을 준비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필수 의료 공백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주력해왔다.

특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의정환법'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남원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지중기위)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입법, 산업·에너지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남부안농협, 조합원 대상 '농업인 무료법률상담'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역olum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법무지원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1:1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무료법률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임실 관촌면, 7월 기관장 협의회 개최

임실군 관촌면은 지난 20일 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촌면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사발령으로 인한 회원 명단 정비와 기관장 협의회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주요 행사 및 일정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협력 체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관촌면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내달 15일 '장수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 가요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관하고 장수군지부가 주최하는 제4회 장수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린다.

농촌문화예술 참여 확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수군 천천사랑을 위한 본 행사는 8월 15일 오후 2시 장수군 천천천 하늘내 체육관에서 전국의 노래 동호인을 초청하여 질 높은 트로트 열창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콘서트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도 배부되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본 대회 참가자는 8월 7일까지 사무국에 신청을 하고 행사일 오전 10시 예선에 참가하며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